

고등학생의 우울 및 불안이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에 미치는 영향: 걱정과 반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찬우* · 김근향**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우울 및 불안과 음주 및 흡연 동기의 관계에서 반추와 걱정의 매개 효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4개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 70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Cooper(1994)의 음주동기척도, Smith et al.(2010)의 흡연동기척도, Kovacs(1985)의 소아우울척도, Reynolds와 Richmond(1978)의 소아불안척도, Nolen-Hoeksema와 Morrow(1991)의 반추반응척도와 Meyer, Miller, Metzger and Borkovec(1990)의 걱정질문지를 시행하였다. 자료를 경로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의 우울과 음주동기와의 관계에서 반추의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하였고, 불안과 음주동기와의 관계에서 반추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우울이 흡연동기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불안과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와의 관계에서 걱정의 유의미한 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문제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룰시 반추와 함께 동기에 대한 인식 및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방적 개입과 정책에 대해 논의 되었다.

주제어 : 우울, 불안, 음주동기, 흡연동기, 반추, 걱정

* 고려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제1저자

** CHA의과대학학교 분당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신저자, khyang25@hanmail.net

I. 서 론

고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은 요즘 흔히 접할 수 있는 장면으로 음주와 흡연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이다(김현옥, 전민숙, 2007). 보건복지부가 2012년도에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율은 19.4%, 흡연율은 11.4%이며, 성인의 음주율은 27%, 흡연율은 22.9%이다(보건복지부, 2012b).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며, 거의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율 및 흡연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율은 2005년도에 27.0%에서 2012년에는 19.4%로 감소하였고, 흡연율은 2005년도에 11.8%에서 2012년에는 11.4%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 2012b). 하지만 음주 및 흡연 시작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주자 및 흡연자 비율은 높아지며 흡연율이 가장 높은 고등학교 3학년의 흡연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Government Youth Commission, 2006; 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 Health, 2006).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강증진 사업 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음주, 흡연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Christiansen과 Goldman(1983)은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양상이 성인기의 음주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주 및 흡연 연구가 중요하다고 보았고, Cooper(1994)와 Timothy, Tibor and Mike(2013) 또한 음주행동을 예측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음주동기를 밝혀야 함을 강조하였다.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이 시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측면의 복잡한 변화가 일어난다. 성호르몬 분비와 함께 급격한 신체적 성장이 일어나고, 인지적으로는 추상적, 논리적 사고를 하는 뇌의 변화와 함께 정서적으로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급격하고 복잡한 정서의 동요를 경험하며,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고 통합하는 인간발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많은 청소년들은 발달 과업상의 성취에 어려움으로 정서적 불안정성을 경험하기 쉬우며 일부 청소년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주 또는 흡연을 택한다(김은주,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주 및 흡연의 동기를 살펴보고 그들이 발달 단계상 또는 심리사회적 요인 등의 이유로 우울 또는 불안을 경험할 시 동

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울과 불안의 특징적인 인지적 기제인 반추와 걱정이 그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매개효과의 존재를 탐색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다룬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음주동기 및 음주의 영향

청소년기 음주의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 술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허용되는 분위기이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은 부모나 친구, 어른들로부터 비교적 쉽게 배우고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음주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 음주는 성인의 음주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밝혀졌다. 알코올 중독은 정신과적 질환 중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 중 하나이며, 음주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문제를 발생시킨다. 청소년 음주는 약물중독, 폭력, 자살, 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김현수, 2002; Hingson, Heeren & Winter, 2006; Windle, 1999). 음주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음주문제를 경험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공격성, 학업문제, 비행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15세 이전에 음주를 시작할 경우 성인이 되어 알코올 의존이 될 확률도 높아진다(Grant, 1998; Kaplow, Curran, Angold & Costello, 2001). 청소년의 문제음주는 다양한 개인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초래함으로써 이를 처리하는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음주로 초래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 기초적인 작업으로 청소년들이 왜 음주를 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 즉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강화하는 요인을 탐색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이시연, 2006).

동기(motivation)는 행동을 유발한다. 동기는 개인이 소망하는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Cox & Klinger, 1988). Atkinson

(1958)은 동기를 어떤 행위의 방향과 강도 그리고 행위를 지속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영향이라 정의하였다. 한편,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동기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로서 원인, 연유, 계기 등을 유의어로 칭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동기의 심리학적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의 동기는 행동을 처음으로 유발하고 그 행동을 유지시키는데도 기여하는 것을 내포하며 특정 행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기대감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술을 마시는 행위도 그 주체가 되는 개인이 긍정적 감정의 경험 또는 부정적 정서의 완화 등의 욕구를 성취하고자하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 이를 음주의 동기라 할 수 있다(Cooper, Frone, Russell & Mudar, 1995). 음주동기는 음주행동에 가장 근접한 선행변인으로 음주행동에 이르는 여러 요인들의 공통경로이고 음주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김상희, 2011).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마시게 된다(Adesso, 1985). 어떤 사람에게는 음주가 대인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추구, 스트레스 및 긴장완화의 효과를 기대하며 마신다(Damaris, 1983; 서경현, 2002). 이와 같이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 음주를 하는 이유는 다르다. Cox와 Klinger(1988)는 음주동기에 기저하는 2가지 차원에 따라 음주동기를 4가지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음주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들의 방향성 차원이며 이는 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로 분류된다. 두 번째 차원은, 음주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결과들의 원천이며 내적 원천과 외적 원천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방향성과 원천의 조합에 따라 분류한 4가지 음주동기는 친목과 사회적 활동과 연결되는 사교동기,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거나 조절하기 위한 대처동기, 사회적 비난이나 거부를 피하기 위한 동조동기, 그리고 긍정적인 기분을 고양시키기 위한 고양동기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 4가지 음주동기가 음주동기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며, 타당한 분류라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신행우, 1998; Simons, Correia, Carey & Borsari, 1998).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음주동기의 개별 차원에 초점을 두어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Young-Wolff, Kendler, Sintov and Prescott(2009)은 대처동기만을 Goldstein과 Flett(2009)는 대처동기와 고양동기에만 초점을 두어 분석하는 등 부분적 특성에만 초점을 두고 음주동기의 복합적인 차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신원우,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

동기의 개별 차원을 토대로 분석하기보다는 음주동기 자체를 단일 요인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음주문제 및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많다(Bettina & Mate, 2012; Federica, Mnauela, Fabrizia & Silvia, 2012; Perra, Fletscher, Bonell, Higgins & McCrystal, 2012; Solange, Roland & Daniel, 1994).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술과 관련된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며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Young-Wolff et al., 2009).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2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우울감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없는 학생보다 흡연율과 음주율이 약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숙희와 오수성(2005)의 연구에서는 음주문제를 가지는 사람 중 상당수는 임상적 수준의 불안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고, Marlatt와 Gordon(1985)은 습관적 음주자와 알코올 중독자들의 주요 재발 원인으로 불안과 우울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길홍 외(1985)는 불안 성향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음주의 빈도 등이 높다고 하였으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불안과 음주동기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Clerkin & Barnett, 2012; Ham, Bonin & Hope, 2007; Kuntsche, Knibblе, Gmel & Engels, 2006).

2. 청소년의 흡연동기 및 흡연의 영향

한편 청소년기의 흡연의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호흡기에 대한 영향이 대표적이다. 담배에는 69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4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흡연은 가래, 천명, 숨참 등의 호흡기 증상을 유발할 뿐 아니라 폐의 발육 및 폐기능을 감소시킨다. 또한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나 유해물질에 대한 방어능력을 저하시키고, 폐에 존재하는 방어세포의 수, 형태를 변화시키는 등 호흡기 조직 및 기능저하를 야기하고, 호흡기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폐암의 원인이 된다(Jee, Samet, Ohrr, Kim & Kim, 2004). 흡연은 모든 암 원인의 30%, 폐암 원인의 55.6%를 차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한국경제, 2013). 또한 흡연은 중성지방, 동맥경화증의 악화요인인 초저밀도 지질단백 콜레스테롤을 12% 증가시키고 동맥경화증의 보호

요인인 고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롤을 9% 감소시키는 등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흡연 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수명 단축 효과도 크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4년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에 비해, 1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에는 8년이 단축된다(보건복지부, 2013). 미국의 경우 2000년도에 17세 이하의 청소년 흡연자가 2,000만 명으로 추산되었고 금연을 하지 않는다면 이 중 약 640만 명이 흡연으로 조기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Volker, Nawi, Fikru & Heiko, 2013).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의하면, 흡연은 사망의 첫 번째 주 요인으로 세계 성인 10명 중 1명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WHO, 2012). 이 외에도 조기 피부 노화 현상, 임신관련 장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다른 약물의 사용 및 남용, 일탈행위와의 관련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흡연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커지고 금연이 어려워지며 평생 흡연자 및 중증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한 성인기 건강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와 함께 청소년기의 흡연은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의 정신건강학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보건복지부, 2013). 아울러 우울감 경험에 있는 학생은 없는 학생보다 음주, 흡연, 수면 미충족률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2b).

학교 및 정부에서 청소년 대상 금연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의 저하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흡연이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장영순, 2002). 특히,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친구의 권유, 담배광고 등은 흡연에 직접적으로 높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영, 1997)결과에 따르면, 흡연동기는 호기심(52.1%),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어서(23.6%),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14.3%), 멋있게 보이기 위해(10.6%)로 나타났다. 최은정, 남길현과 박천만(1999)의 연구에서는 호기심(39.2%), 친구의 권유와 반향, 도피(28.4%),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23.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의 연구에서는 즐거움과 쾌락의 추구, 부정적 정서의 통제, 휴식, 분노, 호기심 등으로 나타났다(Spielberger, Foreyt, Reheiser & Carlos, 1998; Tomoe, Field, Berker, Colditz & Frazier 1999; William, Steven, Claude, Amelia, Brain & Deborah, 2013). 연령에 따라서도 흡연동기와 유형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학생은 성인보다 부정적 정서 감소, 감각-운동적 만족 때문에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흡연행동이 자신의 매력을 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아 즉, 사회적 매력이 큰 요인이라고 설명한다(이기학, 한종철, 1996). 오익수, 박경애, 황순길, 이재규와 이향림(1993)은 청소년의 흡연습관 형성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의 영향요인과 흡연동기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흡연충동이고 두 번째 단계는 첫 흡연경험, 세 번째 단계는 재흡연 경험이며 네 번째 단계는 흡연습관이다. 세 번째 단계는 한 번 흡연을 경험해본 청소년들이 흡연행동을 유지하게 되는 단계로 불안, 생활 스트레스와 흡연동료가 이 단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한편 Spielberg et al.(1998)은 흡연시작의 가장 큰 동기를 쾌락과 새로운 경험으로, 흡연유지의 주요 동기로는 긴장, 분노의 감소 등이라고 하였다.

3. 반추 및 걱정과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와의 관계

Nolen-Hoeksema(1991)는 반추를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몰입으로 정의하였고, 반추함으로써 우울과 관련된 기억을 반복적으로 회상하게 되어 개인은 적절한 대처행동을 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우울을 장기화하고 악순환 시킨다고 하였다(Nolen-Hoeksema & Larson, 1999). 반추모델에 따라서 반추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예로, 슬픔의 반추모델에서는 슬픔에 관련된 상황과 슬픔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Conway, Csank, Holm & Blake, 2000), Wells와 Matthews(1994)의 실행기능 자기조절 이론에서는 반추를 실제 상태와 원하는 상태 사이의 불일치에 작용하는 포괄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반추에 대한 정의는 학자, 모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Nolen-Hoeksema(1991)의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몰입으로 정의되는 반추는 우울과 불안의 발달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널리 쓰이는 개념으로서 본 연구에서도 이 개념을 따르고자 한다.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 반추는 동기를 경험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이 주장되고 있다(Caselli, Bortolai, Leoni, Rovetto & Spada, 2008; Caselli et al., 2010; Spada, Caselli & Wells, 2013). 반추는 동기를 증가시키는 경향과 함께 특히 알코올 남용자의 경우 알코올 사용에 대한 욕구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며, Caselli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해 습관적 음주자 집단이 반추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보고된다.

반추와 함께 걱정도 우울과 불안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불안을 설명하는데 있어 걱정은 가장 핵심적인 인지적 기제 중 하나이다(Berkovec,

1994; Fournier, Freeston, Ladouceur, Dugas & Guevin, 1996). 걱정은 위협적 심상으로 유발되는 정서적, 생리적 반응에 대한 인지적 회피기제로서 걱정이 과도하게 병리적 특성으로 작용하게 될 때 침투적이며 부정적 사고와 불안을 동반하는 정서적 불편감을 유발하여 적응적 기능을 저하시키게 된다(Borkovec, 1994; Davey, 1994). 불안 등과 같은 정서적 요인과 흡연동기는 높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Abigail, Giao, Joshua & Steven, 2009; Bettina, Thomas & Carmella, 2007; Julia & Christine, 2013). 또한 걱정과 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도 두 요인간 관련성의 존재가 설명되고 있는데(Thompson, 2012), Peasley-Miklus, McLeish, Schmidt and Zvolensky(2012)의 연구에서 걱정은 흡연동기와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고 더 나아가 흡연행동을 중단하는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듯 반추와 걱정은 우울과 불안 증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은 또한 동기와도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려져 있으며 특히, 반추는 우울과 불안을 경험 중인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인지적 기제로 검증되었다(Nolen-Hoeksema, 2000).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와 반추 및 걱정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지만 이들 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이들 요인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지만, 실제로 우울과 불안이 어떤 기제를 통해 음주 및 흡연동기를 야기하는지를 설명해주지는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현재까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과 음주 및 흡연동기의 관계에 대한 반추와 걱정과 같은 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우울, 불안, 청소년의 음주율,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음주동기와 흡연동기를 상승시킬 수 있는 주 요인인 우울, 불안과 이들의 주요 인지적 기제인 반추 및 걱정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은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가 유발되는 과정에서, 우울과 불안이 음주동기와 흡연동기를 유발한다는 이론적 토대와 반추와 걱정은 우울과 불안의 특성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의 인지적 요인이며 지속요인이라는 이론적 근거 및 반추와 걱정은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 등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우울과 불안이 음주 및 흡연동기에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때, 흔히 이들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반추와 걱정의 매개효과의 존재를 가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즉, 우울, 불안, 반추, 걱정, 음주동기, 그리고 흡연동기를 하나의 모형으로 구조화하여 이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요인의 경로 및 영향을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우울 및 불안이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각 관계에서 걱정과 반추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고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을 감소시키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음주, 흡연에 대한 예방 및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I. 방 법

1. 연구가설 및 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고등학생들의 우울 및 불안과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와의 관계에서 걱정과 반추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및 가설을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1. 고등학생의 우울과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와의 관계에서 반추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 고등학생의 불안과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와의 관계에서 걱정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2년 1월에서 6월까지 서울, 경기도 지역의 4개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등학교의 선정은 무작위로 여러 개의 일반계 고등학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그 중 승인한 학교에 한 해 진행되었다. 참여

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연구에 대한 학교당국의 사전 승인 하에 담임교사가 연구목적을 반 학생들에게 제시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해 서면동의를 받았다. 설문지는 총 723부가 배부되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17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706부를 최종 분석으로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서울의 A학교에서 117명, B학교에서 109명, 경기도의 C학교에서 264명, D학교에서 116명이 참가하였다. 연구대상인 고등학교 706명 중 남자는 338명(47.8%), 여자는 368명(52.2%)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은 233명(33.0%), 2학년은 233(33.0%)명, 3학년은 240(34.0%)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6.28세 ($SD=.92$)였다.

3. 측정도구

1) 음주동기(Drinking Motive Questionnaire-Revised; DMQ-R)

Cooper(1994)가 알코올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음주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DMQ-R은 사교동기, 대처동기, 고양동기, 동조동기의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6까지의 6점 척도로 총 20개 문항들로 각 차원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현장 경험이 15년 이상인 임상심리전문가 두 명의 한국인 연구자(김근향 Ph.D, 조선미 Ph.D)가 원척도의 저자의 허락을 받은 후 original DMQ-R을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문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4-.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2) 흡연동기(Brief-Wisconsin Inventory of Smoking Dependence Motives; B-WISDM)

Smith et al.(2010)이 흡연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WISDM 척도의 단축형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B-WISDM은 1-7까지의 7점 척도로 총 37개 문항들로 11개의 차원을 측정한다. 11개 차원은 친화적 애착, 자동성, 인지 향상, 갈망, 신호 노출, 통제 상실, 부정/내적 강화, 사회적/환경적 자극, 미각특성, 내성, 체중매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명의 한국인 연구자(김근향, Ph.D., 조선미, Ph.D.)가 original B-WISDM을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문척도의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8로 나타났다.

3) 소아 우울 척도(Child Depression Inventory; CDI)

Kovacs(1985)가 6-17세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 보고형 척도로, 지난 1주 동안의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점 까지 평정하는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총점은 0-54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상희와 박경(2005)의 연구와 유재순, 손정우와 남미선(2010) 등 국내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러 연구에서 우울을 평정하기 위해 본 척도가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4) 소아 불안 척도(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Reynolds와 Richmond(1978)가 6-17세 아동 및 청소년의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각 문항은 2점 척도로 평가되며 총3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0-37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은혜, 오경자와 송동호(2003)와 최혜인 외(2012)등 국내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러 연구에서 불안을 평정하기 위해 본 척도가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진숙과 조수철(199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Cronbach's α 는 .8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3로 나타났다.

5) 반추반응 척도(Ruminative Response Scale; RRS)

Nolen-Hoeksema와 Morrow(1991)가 반추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우울한 기분일 때 하는 여러가지 생각과 행동의 정도를 1-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반추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은정과 오경자(199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문척도의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6) 걱정 질문지(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for Children; PSWQ-C)

Meyer, Miller, Metzger and Borkovec(1990)이 개발한 척도로, 각 문항은 걱정
대한 일련의 진술로 1-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총 1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성구, 신진희, 황유나와 송상욱(200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연구에서는 1-4점까지의 4점 척도였으나, 본 연구의 대
상인 고등학생의 경우 좀 더 분화된 사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간주하고 PSWQ 성인용
과 동일하게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원문척도의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91로 나타났다.

4. 통계적 분석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우울 및 불안과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 간의 관계에서 반추 및 걱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18.0
을 사용하였다.

IV. 결 과

1. 우울, 불안, 음주동기, 흡연동기, 걱정, 반추 척도 간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걱정은 반추($r=.69, p<.01$), 불안($r=.53, p<.01$), 우울($r=.53, p<.01$),
음주동기($r=.09, p<.05$)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고, 흡연동기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반추는 흡연동기를 제외한 불안($r=.53, p<.01$), 우울($r=.55, p<.01$), 음주동기($r=.12,$

$p<.01$)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불안은 우울($r=.54$, $p<.01$), 흡연동기($r=.10$, $p<.01$) 및 음주동기($r=.12$, $p<.01$)와, 우울도 흡연동기($r=.13$, $p<.01$) 및 음주동기($r=.14$, $p<.01$)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흡연동기와 음주동기($r=.67$, $p<.01$)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연령은 흡연동기($r=.08$, $p<.05$)와 음주동기($r=.13$, $p<.01$)와의 관계에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걱정, 반추, 불안, 우울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표 1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 (N = 706)

	연령	걱정	반추	불안	우울	흡연 동기	음주 동기
연령	-						
걱정	.01	-					
반추	-.27	.69**	-				
불안	.00	.53**	.53**	-			
우울	-.05	.53**	.55**	.54**	-		
흡연 동기	.08*	.05	.06	.10**	.13**	-	
음주 동기	.13**	.09*	.12**	.12**	.14**	.67**	-
M	16.28	32.11	40.24	11.91	13.80	41.83	23.12
SD	.92	11.09	13.77	6.62	7.10	18.20	8.77

* $p<.05$. ** $p<.01$.

2. 우울 및 불안과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 간 관계에서 반추 및 걱정의 매개효과

우울 및 불안, 음주동기와 흡연동기, 반추 및 걱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정 하였던 경로 모형을 분석하였다. 우울 및 불안, 걱정과 반추가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7.0을 이용해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과 구조모형 검증은 AMOS 18.0을 사용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 와 함께 적합도 지수도를 고려하였는데, χ^2 검증의 평가설의 내용이 엄격해서 모형이 너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와 χ^2 값이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는데, 이 지수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수들이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TLI와 CFI의 경우 값이 .95 이상일 때, RMSEA의 경우는 .06 이하일 때를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분석에 앞서, 자료가 정규분포의 가정을 따르는지도 검증하였는데, 정규분포 가정이 심하게 위반된 경우, 최대 우도법에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Curran, West & Finch, 1996).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보기 위해 첨도(kurtosis)와 왜도(skewness)를 살펴본 결과, 자료는 Curran, West and Finch(1996)가 제시한 정규분포의 기준(왜도<2, 첨도<7)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적합도 지수들은 모두 적절한 수준의 범위에 해당하여, 적합한 모형임을 나타내었다; $\chi^2 = .7244$ (df=6) $p = .403$, TLI=.997, CFI=.999, RMSEA=.017(표 2).

기본모형에서 가정한 3 경로들의 경로계수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울이 반추에 미치는 영향($\beta = .37$, $p < .01$)과 불안이 반추에 미치는 영향($\beta = .33$, $p < .01$)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우울이 흡연동기에 미치는 영향($\beta = .08$, $p < .05$)과 우울이 걱정에 미치는 영향($\beta = .34$, $p < .01$)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반추가 음주동기에 미치는 영향($\beta = .11$, $p < .01$) 및 불안이 걱정에 미치는 영향($\beta = .35$, $p < .01$)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우울과 음주동기의 관계에서 반추가 매개하는지 효과를 검증하였고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반추의 매개효과가 $z = 5.29$, $p < .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반추가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안과 흡연동기의 관계에서 걱정의 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과 음주동기의 관계에서도 반추가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 4.71$, $p < .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7.244	6	.997	.999	.017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B	β	S.E	t
우울	→	반추	.71	.37	.07	10.34**
불안	→	반추	.70	.33	.07	9.46**
반추	→	음주동기	.01	.11	.00	3.70**
불안	→	걱정	.58	.35	.06	9.67**
우울	→	흡연동기	.01	.08	.00	2.77*
우울	→	걱정	.53	.34	.06	9.50**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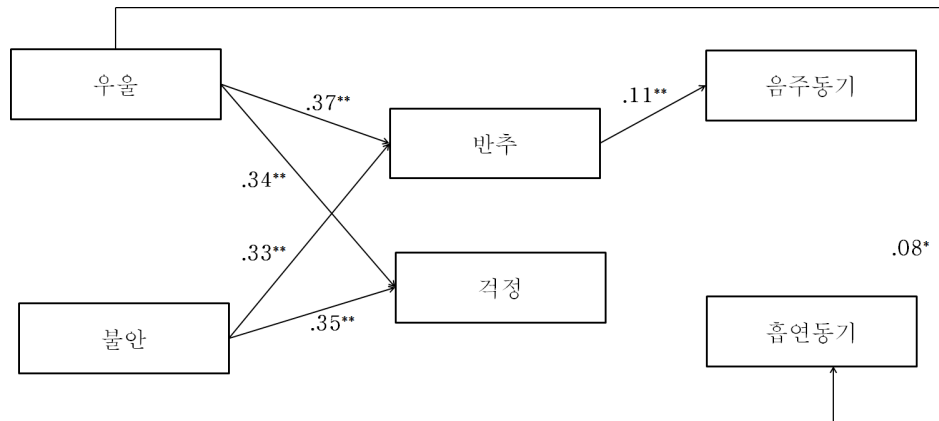


그림 1. 우울 및 불안과 음주동기와 흡연동기 간 관계에서 반추 및 불안의 매개효과 연구모형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우울 및 불안과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와의 관계에서 반추와 걱정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각각의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 1 ‘고등학생의 우울과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와의 관계에서 반추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즉, 우울과 음주동기 간의 관계에서 반추의 매개효과가 존재하였고, 반추는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우울 자체로 음주동기가 발생한다기 보다는 우울한 기분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에 더 몰입하게 되고 이와 관련한 기억을 반복적으로 회상하게 되어 적절한 대처능력이 저하되는 과정을 겪음으로서 음주동기가 발생된다는 Cox와 Klinger(1988)의 설명에도 부합한다. 즉, 우울이 반추를 가중시키며, 이는 음주를 통해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회피 또는 조절하고자 하는 음주동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추후 습관적 음주, 과음 등과 같은 문제음주 뿐만 아니라 약물 사용 및 남용, 발달과업 수행의 지체, 신체 발육 지연, 신체기능 부조화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시사된다(김정심, 2001).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음주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준 신원우(2010)와 Young-wolff et al. (2009)의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현재까지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과정에서 반추의 매개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준 연구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

연구가설 1과 관련한 추가 결과로, 고등학생의 우울 자체가 흡연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즉 고등학생들의 흡연문제를 다룰 때는, 우울이 흡연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우울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증 환자의 흡연율이 일반인보다 3배 높다는 연구(Mathew, Weinman & Mirabi, 1981), 흡연자의 니코틴 의존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흡연자의 우울성향이라고 보고한 연구(오순영, 김세인, 윤방부, 1993) 등과 같이 우울 성향이 흡연의 중요한 심리적 동기라는 것으로 밝혀낸 선행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우울은 성인의 우울과는 좀 더 다른 양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들의 슬픔, 무력감과 같은 우울 증상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기 보다는 두통, 복통 등의 신체증상, 학업성적 저하, 음주,

흡연, 무단결석, 약물사용, 가출 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 또는 비행으로 나타나며 이를 가면성 우울(masked depression)이라고 한다(Sam & Fredric, 2000). 이러한 특징은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발현되는 경향이 있으며 발현 빈도는 아동이나 성인보다도 약간 높은 경향이 있다(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1991).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서문제를 다룰 때는 상이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우울 성향이 높을수록 흡연습관을 조절하기 힘들며 우울은 흡연 시작의 중요한 예측요인이고, 이들이 습관적 흡연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Breslau, Peterson, Schultz, Chilcoat & Andreski, 1998).

둘째, 연구가설 2 ‘고등학교의 불안과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와의 관계에서 걱정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즉 불안은 음주동기 또는 흡연동기에는 걱정을 매개로 하여 또는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순(2002)의 국내 고등학교의 흡연동기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정서의 감소, 공격성 해소, 휴식 및 이완, 친구관계, 지적 호기심, 담배에 대한 흥미, 사회적 매력 순으로 흡연동기가 나타났다. Cooper, Russell, Skinner and Windle (1992)의 연구에서 음주동기는 부정적 정서를 회피, 완화하고, 또래와의 사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리고 스스로 일종의 고양감을 느끼기 위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분노, 고통, 공포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Buss & Plomin, 1984; Watson, Clark & Tellegen, 1998)가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에서 핵심으로 작용하는 기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음주동기 또는 흡연동기를 유발하는 부정적 정서를 이루는 요인 중 불안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는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불안 또는 걱정과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춰 추가로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안은 반추를 매개로 하여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다음에서 논의 된다.

연구가설 2와 관련한 추가 결과로, 고등학교의 불안과 음주동기 간의 관계에서 반추의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불안을 경험하는 고등학교생들은 불안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음주동기가 발생한다기 보다는 불안의 경험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에 더 몰입하게 되고 이와 관련한 기억을 반복적으로 회상하게 되어 적절한 대처능력이 저하되는 과정을 겪음으로서 음주동기가 발생된다는 것이다(Cox & Klinger, 1988). 불안과 반추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불안한 개인이 반추를 하게 되면

더 부정적이라고 부정적 사고를 하게 되고(Lyubomirsky, Caldwell & Nolen-Hoeksema, 1998), 효과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저하(Donaldson & Lam, 2004; 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5; Watkins & Baracaia, 2002; Watkins & Moulds, 2005), 기분을 좋게 해주는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의 감소(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3) 등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불안이 반추를 증폭시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를 회피 또는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음주행동을 떠올리며, 이에 선행하는 음주동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논의하였던 문제음주 뿐만 아니라 추후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기능에 문제를 초래하며 개인, 가족, 학교, 직장 등 다양한 영역에 부정적이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수 있게 된다(김상희, 2011). 따라서 청소년들의 음주문제를 다룰 때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정서 상태와 함께 특히, 불안이 유발될 때 관련된 스트레스 사건을 반추하지 않고 대안적 대처방식을 활용하여 흡연동기의 상승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반추를 함께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로서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를 측정할 시 음주 및 흡연과 관련된 개인별 요인을 세분화하지 않고 진행되었다. 예로, 음주동기와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측정할 때 습관적 음주자, 음주 경험자, 음주 무경험자 등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인 고등학생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의의는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 음주 경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세분화한 분석이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일반고뿐만 아니라 특목고, 실업계고 학생들을 포함하는 등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 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충분한 모집단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 및 불안과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와의 관계에서 반추와 걱정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하지만 각 변인들의 포괄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각 변인에 존재하는 하위영역들의 영향력은 세분화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의 하위영역까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그들의 우울 및 불안을 평정하는데 CDI와 RCMAS를 사용하였다. 이 두 척도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우울 및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임상현장과 기존 연구들에서는 고등학생들까지 폭 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성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그 사용이 제한 될 수 있다. 향후 학년별 연구에서 고3에 대해서는 BDI 등과 같은 성인용 도구의 사용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새롭게 출간된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의 Alcohol Use Disorder와 Tobacco Use Disorder의 진단기준에는, 알코올을 사용하고자하는 갈망 또는 강한 욕망(craving, or a strong desire or urge to use alcohol/tobacco)이 포함되어 있으며, 알코올/타바코 사용 장애를 금단, 내성, 갈망을 포함하는 행동적이고 신체적인 증상의 군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알코올에 대한 갈망은 술에 대한 강렬한 소망(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을 뜻하며 음주 행동을 초래하는 선행 기제이며, 음주행동과 가장 근접한 선행변인인 음주동기(Cox & Klinger, 1998)와 유사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음주에 있어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는 하지만, 이전에 선행하는 갈망 또는 동기가 어떻게 보면 더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다뤄져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음주문제 및 흡연문제의 예방 및 개입에 있어서 음주 및 흡연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와 그 해결책에 대한 모색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의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의 중요성 인식과 이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토대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이와 관련한 정책적 이슈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도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로는, 심한 걱정과 불안으로 등교, 수면의 어려움, 우울로 인한 무기력감 및 대인관계에의 어려움, 지나친 공격성, 술, 담배, 인터넷의 과용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 모든 문제들은 청소년의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고 보고한다. 이러한 정신건강 수준은 중학교 이후 시기에 급격히 저하되는 경향(박동혁, 2007)이 있고 따라서 정부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자살 시도율, 스트레스 인지율, 흡연율 및 음주율 감소를 중, 장기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청소년 음주율 및 흡연율을 각 3% 정도씩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이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프로그램 중 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우수프로그램으로 선

발된 몇 가지를 살펴보면, 강원도의 우울아동 프로그램, 고등학생 대상 우울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있고, 충청남도의 고등학생 우울자살 중재 프로그램, 고등학교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실운영, 또한 서울에서는 동작구의 청소년 대상 우울증 예방관리, 중구의 정신건강인식 개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중랑구의 청소년대상 우울증 예방과 주의력 집중향상 등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입증되었다(보건복지부, 2012a).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청소년 정신건강 유병률을 2020년까지 10%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율은 10%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Expanded School Mental Health Program’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정책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마음의 문제(Mindmatters) 프로그램을 시행중으로 청소년의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 약물남용 등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학교기반의 행동장애, 정신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전문적인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국가와 각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더불어 건강한 정신건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하여 정기적인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즉, 학교에서의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으로서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고위험군의 선별 및 관리이다. 하지만 본 저자가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고위험군의 선별 및 관리의 중요성만큼 고위험군의 비율 자체의 감소를 핵심으로 보고 이를 위한 정책 및 예방 프로그램의 활성화이다. 박동혁(2007)이 국내 중고생 6,41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히 병리적 증상의 감소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안녕감의 경험 및 심리적 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음주 및 흡연 동기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는 음주 및 흡연과 관련된 동기를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내 청소년들은 수능 및 입시, 취업문제 등으로 학생과 부모가 매우 큰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심각히 경험할 수 있고, 이는 곧 음주, 흡연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이는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반추와 같은 부정적인 인지적 기제가 발동함으로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증폭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검증하였다. 따라서 인지행동적 개입,

긍정심리학적 개입 등 부정적 사고 및 정서를 감소시키고 인간의 전반적인 well-being 과 행복을 도모한다는 기본 논리를 추구하는 접근법을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착 시키기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이와 관련한 고영진, 김정일과 김진영(2009)의 청소년 정신건강 최적화 전략의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멘탈 휘트니스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음주, 흡연 등과 같은 문제의 완화와 함께 건강 증진 행동 상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경우 긍정심리교실, 감성행복과정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개설을 통해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삶에서의 어려움이나 감정적 피로 등에 따른 행복지수 진단과 감성치유, 개인의 스트레스 조절 기법 및 회복 훈련 등을 목표로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중앙공무원교육원, 2013a; 중앙공무원교육원, 2013b). 이러한 프로그램이 다양한 장면에서 다양한 계층에게 유익하고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된 만큼 이를 현재 매우 중요한 발달 과정을 겪는 미래의 자원인 청소년들에게 적용시킨다면, 중장기적으로 정신건강의 예방 및 증진 차원뿐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미래에도 기여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성구, 신진희, 황유나, 송상욱 (2008). 소아의 걱정 증상과 우울 성향과의 관계.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8(3), 186-193.
- 고영진, 김경일, 김진영 (2009). **메시지 프레이밍과 멘탈 휘트니스 기법을 활용한 청소년 건강 행동의 최적화 전략: 2009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동기06.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0198300>에서 2014년 2월 10일 인출.
- 김상희 (2011). **성인에착유형과 음주동기유형이 음주관련문제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심리학과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정, 오경자 (1994). 우울증상의 지속에 영향을 주는 인지 및 행동요인들: 3개월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3(1), 1-19.
- 김정심 (2001). **청소년 문제성 음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주 (2012). **청소년의 음주,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수 (2002). 한국청소년 음주 및 약물남용과 비행행동간의 상관관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1(3), 472-485.
- 김현욱, 전미숙 (2007). 청소년의 흡연, 음주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 21(2), 217-229.
- 박동혁 (2007). **예방과 촉진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모형의 탐색**. 아주대학교 심리학과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 (2012a). **지역별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사례집**.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2b).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국가승인통계 제11758호.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2013년도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안내지침**. 서울: 보건복지부.
- 서경현 (2002). 성별, 음주 가족력 및 음주 동기가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알코올과학회지**, 3(2), 205-213.
- 신원우 (2010). 심리적 취약성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음주동기의 매개

- 효과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1(3), 81-105.
- 신행우 (1998). **성격과 음주동기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1991). 문제행동 양상에서의 성차이.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2(1), 125-137.
- 오순영, 김세인, 윤방부 (1993). 흡연자의 우울성향과 니코틴 의존도. **가정의학회지**, 14(2), 79-87.
- 오익수, 박경애, 황순길, 이재규, 이향립 (1993). **청소년 흡연행동: 습관형성과정, 실태, 대책**(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구보고서 5).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유재순, 손정우, 남미선 (2010). 자살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제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1(1), 71-81.
- 이기영 (1997). 일부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간호**, 36, 91-100.
- 이기학, 한종철 (1996). 대학생의 각성 수준 상황에 따른 흡연 욕구 및 심리적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114-127.
- 이길홍, 박두병, 김현수, 박문희, 김혜진, 민병근 (1985). 학생청소년의 불안성향과 음주유형의 관계 분석. **한국의과학**, 17(1), 32-42.
- 이시연, 최윤정, 권현진 (2006).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포커스집단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1), 319-346.
- 장영순 (2002). **고등학생의 흡연동기와 담배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와와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6.
- 중앙공무원교육원 (2013a). **감성행복과정 자료집**. 서울: 중앙공무원교육원.
- 중앙공무원교육원 (2013b). **긍정심리교실 자료집**. 서울: 중앙공무원교육원.
- 채숙희, 오수성 (2005). 음주문제, 자존감, 사회적 지지 및 금단이 알코올 의존 환자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36, 55-71.
- 최은정, 남길현, 박천만 (1999). 구미시 인문계 고등학생 등의 흡연 실태와 관련 요인 분석. **보건복지연구**, 3, 351-382.
- 최진숙, 조수철 (1990). 소아불안의 측정: RCMAS 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신경정신의학**, 29(3), 691-702.

- 최혜인, 전덕인, 정명훈, 홍나래, 김재진, 송정은 외 (2012). 청소년 우울증에서 자살 행동과 인터넷 사용. **대한정신약물학회지**, 23, 65-73.
-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증상 공존집단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 22(2), 127-144.
- 한국경제 (2013.5.31). 안윤옥 서울대의대 교수팀 “국내 폐암 56%는 흡연 탓 ‘16년간 추적조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53040491>에서 2013년 5월 31일 인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정신건강 정책 및 법 제도를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10-206.
- 한상희, 박경 (2005).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대인불안 및 우울과의 관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심리치료**, 5(1), 43-61.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bigail, A. G., Giao, Q. T., Joshua, P. S., & Steven, R. Howe. (2009). Alcohol expectancies and drinking motives in college drinkers: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ized anxiety and heavy drinking in negative-affect situations. *Addictive Behaviors*, 34(6-7), 505-513.
- Adesso, V. J. (1985). *Determinants of substance abuse: Cognitive factors in alcohol and drug use* (pp.179-199). New York: Springer Science.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SM 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Atkinson, J. W. (1958). *Motives in fantasy, action and society: A method of assessment and study*. Princeton, N.J.: Van Nostrand.
- Berkovec, T. D. (1994). The nature, functions, and origins of worry. In G. Davey, & F. Tallis (Eds.), *Worrying: Perspectives on theory, assesment, and treatment* (pp.5-33). New York: Wiley.
- Bettina, F. O., Thomas, A. W., & Carmella, W. (2007). Motives for smoking and drinking: Country and gender differences in samples of Hungarian and US

- high school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32(10), 2087-2098.
- Bettina, F. O., & Mate, A. B. (2012).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 smoking and drinking. *The Journal of Addictive Behavior*, 37, 353-356.
- Breslau, N., Peterson, E. L., Schultz, L. R., Chilcoat, H. D., & Andreski, P. (1998). Major depression and stages of smok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5(2), 161-166.
- Borkovec, T. D. (1994). The nature, function, and origins of worry. In G. Davey, & F. Tallis (Eds.), *Worrying: Perspective on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pp.5-33). New York: Wiley.
- Buss, A.,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aselli, G., Bortolai, C., Leoni, M., Rovetto, F., & Spada, M. M. (2008). Rumination in problem drinkers. *Addiction Research & Theory*, 16(6), 564-571.
- Caselli, G., Ferretti, C., Leoni, M., Rebecchi, D., Rovetto, F., & Spada, M. M. (2010). Rumination as a predictor of drinking behaviour in alcohol abusers: A prospective study. *Addiction*, 105(6), 1041-1048.
- Caselli, G., Gemelli, A., Querci, S., Lugli, A. M., Canfora, F., Annovi, C., et al. (2013). The effect of rumination on craving across the continuum of drinking behaviour. *Addictive behaviors*, 38(12), 2879-2883.
- Clerkin, E. M., & Barnett, M. (2012). The separate and interactive effects of drinking motives and social anxiety symptoms in predicting drinking outcomes. *Addictive Behaviors*, 37(5), 674-677.
- Conway, M., Csank, P. A., Holms, L., & Blake, C. K. (2000). On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rumination on sad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5(3), 404-425.
- Cooper, M. L., Russell, M., Skinner, J. B., & Windle, M. (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hree-dimensional measure of drinking motives. *Psychological Assessment*, 4, 123-132.
- Cooper, M. L. (1994). Motivation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 117-128.
- Cooper, M. L., Frone, M. R., Russell, M., & Mudar, P. (1995). Drinking to regulat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990-1005.
- Cox, M., & Klinger, E. (198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168-180.
- Christiansen, B., & Goldman, M. (1983). Alcohol-related expectancies versus demographic/background variables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drink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249-257.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Damaris, J. (1983). Drinking habits and expectancies about alcohol's effects for self versus oth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5), 752-756.
- Davey, G. C. L. (1994). Pathological worrying as exacerbated problem solving. In G. C. L. Davey, & F. Tallis (Eds.), *Worrying: Perspective on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pp.35-59). Chichester, England: Wiley.
- Donaldson, C., & Lam, D. (2004). Rumination, mood and social problem solving in major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34, 1309-1318.
- Federica, G. A., Manuela B. A., Fabrizia G. B., & Silvia, C. (2012). Drinking motives and alcoholic beverage preferences among Italian adolescents. *The Journal of Adolescents*, 35, 823-832.
- Fournier, S., Freeston, M. H., Ladouceur, R., Dugas, M. J., & Guévin, M. C. (1996). Excessive worry, and anxiety i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The Meeting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Quebec, Canada.
- Goldstein, A. L., & Flett, G. L. (2009). Personality, alcohol use, and drinking motives: A comparison of independent and combined internal drinking

- motives groups. *Behavior Modification*, 33(2), 182-198.
- Government Youth Commission (2006). *Youth hurtfulness environment contact synthesis research on actual state 2005*. Unpublished Report.
- Grant, B. F. (1998). Age at smoking onset and its association with alcohol consumption and DSM-IV alcohol abuse and dependence: Result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alcohol epidemiologic survey. *Journal of substance abuse*, 10(1), 59-73.
- Ham, L. S., Bonin, M., & Hope, D. A. (2007). The role of drinking motives in social anxiety and alcohol us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8), 991-1003.
- Hingson, R. W., Heeren, T., & Winter, M. R. (2006). Age at drinking onset and alcohol dependence: Age at onset, duration, and severity.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0, 739-746.
- Hu, L. T.,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Jee, S. H., Samet, J. M., Ohrr, H. C., Kim, J. H., & Kim, I. S. (2004). Smoking and cancer risk in Korean men and women. *Cancer causes and control*, 15, 341-348.
- Julia D. B., & Christine, V. (2013). Smoking and social anxiety: The roles of gender and smoking motives. *Addictive Behaviors*, 38(8), 2388-2391.
- Kaplow, J. B., Curran, P. J., Angold, A., & Costello, E. J. (2001). The prospective relation between dimensions of anxiety and the initiation of adolescent alcohol us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 316-326.
- 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 Health (2006). *National middle, high school student smoking research on actual state*. Unpublished report.
- Kovacs, M. (1985).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Psychopharmacology Bulletin*, 21, 955-988.
- Kuntsche, E., Knibble, R., Gmel, G., & Engels, R. (2006). Who drinks and why? A review of socio-demographic, personality, and contextual issues behind the

- drinking motives in young people. *Addictive Behaviors*, 31(10), 1844-1857.
- Lyubomirsky, S., & Nolen-Hoeksema, S. (1993). Self-perpetuating properties of dysphoric ru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339-349.
- Lyubomirsky, S., & Nolen-Hoeksema, S. (1995). Effects of self-focused rumination on negative thinking and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76-190.
- Lyubomirsky, S., Caldwell, N. D., & Nolen-Hoeksema, S. (1998). Effects of ruminative and distracting responses to depressed mood on retrieval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66-177.
- Marlatt, G. A., & Gordon, J. R. (1985). *Relapse prevention: Maintenance strategies in the treatment of addictive behavior*. New York: Guilford Press.
- Mathew, R. J., Weinman, M. L., & Mirabi, M. (1981). Physical symptom of depression.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9, 293-296.
- Meyer, T. J., Miller, M. L., Metzger, R. L., & Borkovec, T. D. (199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8, 487-495.
- Nolen-Hoeksema, S., & Morrow, J. (1991). A prospective study of depression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fter a natural disaster: The 1989 Loma Prieta Earthquak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1), 115.
- Nolen-Hoeksema, S. (1991). Responses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569-582.
- Nolen-Hoeksema, S., & Larson, J. (1999). *Coping with loss*. Mahwah, NJ: Erlbaum.
- Nolen-Hoeksema, S. (2000). The role of rumination in depressive disorder and mixed anxiety/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3), 504-511.
- PeasleyS-Miklus, C. E., McLeish, A. C., Schmidt, N. B., & Zvolensky, M. J. (2012). An examination of smoking outcome expectancies, smoking motives and trait worry in a sample of treatment-seeking smokers. *Addictive*

- behaviors*, 37(4), 407-413.
- Perra, O., Fletcher, A., Bonell, C., Higgins, K., & McCrystal, P. (2012). *The Journal of Adolescents*, 35, 315-324.
- Reynolds, C., & Richmond, B. (1978). What I think and feel: A revised measure of children's manifest anxie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6, 271-280.
- Sam, V. C., & Fredric, E. R. (2000). *Men and depression: Clin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California: Academic press.
- Simons, J., Correia, C. J., Carey, K. B., & Borsari, B. E. (1998). Validating a five-factor marijuana motives measure: Relations with use, problems, and alcohol motiv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265-273.
- Smith, S. S., Piper, M. E., Bolt, D. M., Fiore, M. C., Wetter, D. W., & Cinciripini, P. M. (2010). Development of the brief wisconsin inventory of smoking dependence motives. *Nicotine & Tobacco Research*, 12, 489-499.
- Spada, M. M., Caselli, G., & Wells, A. (2013). A triphasic metacognitive formulation of problem drinking.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0(6), 494-500.
- Spielberger, C. D., Foreyt, J. P., Reheiser, E. C., & Carlos Poston, W. S. (1998). Motivational, emotional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smokeless tobacco users compared with cigarette us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821-832.
- Solange, C., Roland, C., & Daniel, W. (1994). Nicotine dependence and motives for smoking in depression. *Journal of Substance Abuse*, 6(1), 67-76.
- Thompson, R. D. (2012). *Worry, affect and alcohol craving: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incinnati, Cincinnati, Ohio, USA.
- Timothy, E. R., Tibor, P. P., & Mike, R. (2013). The influence of depressed mood on action tendencies toward alcohol: The moderational role of drinking motives. *Addictive Behaviors*, 38(12), 2801-2816.
- Tomoe, C. A., Field, A. E., Berker, C. S., Colditz, G. A., & Frazier, A. L. (1999). Weight concerns, weight control behaviors and smoking initiation. *Pediatrics*,

104, 918-924.

- Volker, W., Nawi, N., Fikru, T., & Heiko, B. (2013). Predicting lung cancer deaths from smoking prevalence data Original Research Article. *Lung Cancer*, 74(2), 170-177.
- Watkins, E., & Baracaia, S. (2002). Rumination and social problem solving in depres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 1179-1189.
- Watkins, E., & Moulds, M. (2005). Distinct modes of ruminative self-focus: Impact of abstract versus concrete rumination on problem solving in depression. *Emotion*, 5, 319-328.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ells, A., & Matthews, G. (1994). *Attention and emotion: A clinical perspective*. Hove: Erlbaum.
- William, G. S., Steven, C. M., Claude, S., Amelia, H., Brain, A. P., & Deborah S. (2013). Motives for smoking in movies affect future smoking risk in middle school student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23(1-3), 66-71.
- Windle, M. (1999).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Thousand Oaks, CA: Sage.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2). World Health Statistics 2012.
- Young-Wolff, K. C., Kendler, K. S., Sintov, N. D., & Prescott, C. A. (2009). Mood-related drinking motives mediate the familial between major depression and alcohol dependence Alcoholism. *Clinical & Experimental Research*, 33(8), 1476-1486.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rumination and worr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xiety and drinking motivations, and smoking motivations among high school students

Yoo, Chanwoo* · Kim, Keunhyang**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rumination and worr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xiety and drinking motivations, and smoking motivations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consisted of 706 students and they were asked to fill out the following questionnaires; The Drinking Motives Questionnaire-Revised, the Brief-Wisconsin Inventory of Smoking Dependence Motives, the Child Depression Inventory, the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the Rumination Response Scale, and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for Children. Firstly, as a result of path analysis, the full mediating effects of rumin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rinking motivations was found. Secondly, the full mediating effects of rumin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drinking motivations was also found.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also discussed and a number of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suggested.

Key Words : depression, anxiety, smoking motivations, drinking motivations, rumination, worry

투고일 : 2013. 12. 6, 심사일 : 2014. 3. 13, 심사완료일 : 2014. 3. 21

* Korea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 Department of Psychiatry, Bundang CHA Hospital, C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